

---

##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SCOPUS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김기수\*\* · 이성준\*\*\*

---

본 연구는 SCOPUS 학술 DB에서 추출된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 키워드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시대별로 어떠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COPUS 학술 DB에서 총 11,734편의 논문을 추출, 이들 논문에 포함된 21,570개 키워드의 시기별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리된 키워드를 상향식으로 정렬, 주제별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를 도출한 후 이들 분류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경제’ 및 ‘복지’ 관련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사회’ 및 ‘문화’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과거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가 주로 거시적 차원의 논의 및 담론에 치우쳤지만, 최근 연구는 더욱 미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히 향

---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

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스칸디나비아 연구, 북유럽 연구, 지역학, SCOPUS, 키워드 분석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한 학계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1970년대 초반 태동, 1980~9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그 궤적을 함께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여러 부작용 -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 일자리 부족, 지나친 능력주의(meritocracy) 강조 등 - 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여전히 사회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유팔무, 2015).

이처럼 스칸디나비아 혹은 북유럽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반면교사로 삼아보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관심에 더해 최근에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국내 스칸디나비아 국가 관련 논의 또는 담론이 주로 평등주의, 보편적 복지 정책, 조합주의, 정부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노동과 자본의 협력 등과 같이 소위 '스칸디나비아 모델(Scandinavian Model)', 혹은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을 가능케 한 여러 사회 문화적 배경 또는 정부 정책을 소개,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최근 담론은 이를 바탕으로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세분화, 전문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일반 대중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및 지식수준도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이전과 비교해 그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이념이나 주의, 혹은 시스템에 대한 고려 외에도 보육이나 교육, 나아가 소비 활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의 방식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소위 가장 ‘핫’한 국가들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꼽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아용품, 반제품 형태의 가구, 인테리어, 패션과 디자인 등 생활 영역 대부분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2000년 창간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선진 사회보장체계, 교육, 노사관계, 경제구조 등과 같은 여러 굵직한 주제를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꾸준히 조망하면서 한국의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전문지역학 학술지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다방면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창간 이후 약 16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분명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COPUS<sup>1)</sup> 학술 DB(database)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185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스칸디나비아 지역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흥미로운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위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1)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SCOPUS는 논문 등 정기간행물, 도서, 회의록 등의 문서와 관련된 세계 최대의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유사한 DB 중에서도 SCOPUS는 미국 밖에서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록한 것으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학과 기관들의 출판물을 광범위하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디지털타임스, 2007년 11월 28일 기사). 1995년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홈페이지 등에서 SCOPUS라는 말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으나, 짐작컨대 ‘목표’ 또는 ‘대상’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skopos’와 라틴어 ‘scopus’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특히 앞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관심 있는 모든 국내 연구자에게 흥미로운 연구 관련 주제를 제시하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1.2 연구범위 및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본 연구 진행에 관련된 범주 및 연구방법 - 예를 들면, SCOPUS 학술 DB 검색 조건 또는 키워드 분석 방법 등 - 을 다룬다. 2장에서는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및 본 연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관련하여, 지역학의 세부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로서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 및 특징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진행한다. 3장과 4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한 연구범위 및 방법론에 입각한 실제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본 연구자들의 연구 진행방향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안을 첨언하고자 한다.

## 1.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Elsevier사가 제공하는 SCOPUS 학술 DB(<https://www.scopus.com>)를 통해 수집되었다. SCOPUS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술 DB로 1823년부터 지금까지 약 21,500개의 저널에서 발행된 약 6천만 개 논문 및 저서의 초록, 참고 문헌, 키워드 등을 정리하여 DB화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과학, 기술, 의학, 사회 과학 및 예술 및 인문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진행된 세계적 차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포괄적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연구자는 이를 통해 연구를 추적, 분석, 시각화할 수도 있다.

다만 SCOPUS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기도 하며,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료에 국한해야 하므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부여한 후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종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article)로 한정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서적, 단순 소책자, 홍보물, 심지어 회의자료 등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 논문으로 문서의 종류를 제한하였다.
- 2) 논문의 제목: 본 학회 및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목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① Sweden, Swedish, ② Finland, Finnish, ③ Denmark, Danish, ④ Norway, Norwegian, ⑤ Iceland, Icelandic, ⑥ Scandinavia, Scandinavian, ⑦ Nordic countries, Nordic. 검색 명령어로 “or”를 지정, 즉 위에서 제시된 단어 가운데 한 단어라도 제목에 포함되는 경우 모두 표본에 포함시켰다.
- 3) 기간: SCOPUS가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년도(결과적으로 1856년부터)로부터 2016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다만 1970년대 이전의 논문 데이터에는 저자 및 저널 등을 제외한 기타 정보들이 기록된 것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데이터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것이었다.
- 4) 언어: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해당 국가에 사는 연구자 또는 독자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와 독자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내부자의 시선으로서만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문서를 작성한 언어는 영어로 한정하였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수는 영어보다 그 수가 훨씬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SCOPUS 기준 논문 제목에 "Sweden" 또는 "Swedish"를 포함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수는 약 8,500개지만, "Sverige" 또는 "Svenska"를 포함하는 논문의 수는 215개이다. 물론, 수가 적더라도 북유럽 국가 언어로 작성된 논문을 포함, 그 결과를 영어로 작성된 논문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5) 분야: 데이터 자체의 방대한 양은 차지하더라도 초기 검색 결과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학, 의학 등 자연과학 논문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 학회와 본 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검색 결과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SCOPUS DB는 전체 데이터를 몇 가지 학문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분석에 포함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Social science, ② Arts and humanities, ③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④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표본 전체의 기본적인 특성 - 예를 들면, 연도별 편수, 논문 출판 국가 등 - 을 파악한 후 검색된 논문에 포함된 모든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물론 먼저 키워드 분류 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키워드를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하향식(top-down) 방법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법, 즉 연관 키워드를 수작업으로 하나씩 묶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분류(소주제), 중분류(중주제), 대분류(대주제)가 도출되는 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의 경우 약 3,471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이를 수작업으로 비슷한 키워드끼리 분류하였고 이것을 다시 총 300여 개 소분류, 100여 개 중분류, 17개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 방식은 키워드 분류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항상 두 명의 연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했음을 밝혀 둔다.

#### 1.4 연구의 한계

다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 관련 키워드를 통해 해당 지역 연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의

진행이 기계적·정량적·서술적 측면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유력 키워드들이 당시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역사적 맥락 등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성적인 논의 역시 연구 진행과정에 있어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본 연구자들이 제 분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들과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한다. 동일 키워드일지라도 그것이 개별 논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그 키워드가 주로 어떤 키워드와 주로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층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키워드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역 연구 역시 여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간 및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진행될 수는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 키워드 역시 해당 지역의 사건과 현상들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사회적·역사적 흐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의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과제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의 전체적인 성격이 가지는 한계와 더불어 세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도 노출될 수 있겠다. <1.3. 연구방법>에서 전제된 바와 같이 해당 시기에 노출된 전체 키워드를 분류하여 소분류·중분류·대분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 연구진행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나, 이러한 방식은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분류방식이라기 보다는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분류방식일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두 명의 연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류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것 역시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다 의미를 가지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하고자 한다.

## 2. 지역학으로서 스칸디나비아 연구

### 2.1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발전 과정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본 연구는 잠시 스칸디나비아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 스칸디나비아 연구가 속한 지역학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하여 잠시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 연구(Scandinavian studies)란 지역학의 여러 하위 분야 가운데 하나로 스칸디나비아 지역 관련 주제, 즉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언어, 문학, 역사, 사회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제 간 연구를 일컫는다. 여기서 ‘스칸디나비아’란 좁게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 이들 3개국 외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페로 제도 등은 물론,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까지 포함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 ‘북구(Nordic)’라는 표현도 구분 없이 자주 쓰인다.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을 내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 이는 보통 ‘민족학(ethnology)’ 영역에 속하지만, 외부인, 즉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지역학(area studies)’ 영역에 속한다고 - 비록, 다소 거친 구분이지만 -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정상수,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서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1869년 미국 위스콘신 그리고 코넬 대학교 내 스칸디나비아 학과(the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and Literatures)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Lavery, 2011; Flom, 1911).

실제로, 미국 내 스칸디나비아 관련 학과 수는 총 10개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편이며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이는 스칸디나비아 출신 이민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미국에 이민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911년 미국 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자 모임인 학술단체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andinavian Studies’ 발족과 함께 학술지 ‘Scandinavian Studies’가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스칸디나비아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또한, 미국 외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에서도 스칸디나비아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는 해당 지역이 과거 역사적으로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활발한 관계를 맺은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기 스칸디나비아 학과 교과과정은 언어, 문학, 역사, 연극·영화 등 인문학 분야에 거의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 초중반부터 비인문학 과정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전 세계 여러 스칸디나비아 학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워싱턴 대학 스칸디나비아 학과(Department of Scandinavian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경우 1984년 첫 스칸디나비아 정치학 강의가 개설된 바 있으며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 현재 총 7개 관련 강의가 진행 중이다. 참고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의 경우 1994년부터 지역학 과목 - 예를 들어, 북유럽 경제 등 - 이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또한, 영국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경우 스칸디나비아 학과와 경영학과 과목을 결합한 학위 수여 프로그램(Modern Language Plus BA)을 운영하고 있으며, 버클리 대학의 경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이처럼 각 대학마다 비인문학 강의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언어 및 문학 강의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훨씬 낮은 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2 지역학으로서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범위 및 특징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물론 다른 모든 학문 분야의 범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은 이를 ‘진리 추구’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과학자가 추구해야 할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학문 분야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지만 -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후 몇몇 과학철학자는 이러한 결정론적

시각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학을 소위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한 학문 분야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은 기본적으로 과학계 내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예, Whitley, 2000; Nowotny, Scott & Gibbons, 2001; Gieryn, 1999). 즉, 특정 학문 분야의 성격, 특성 또는 연구 범위 등은 해당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 및 기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 - 예를 들어, 인접 학문 연구자 등 - 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socially constructed)’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계를 일종의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 of the science)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학의 학문적 범위 관련 논쟁을 효과적으로 설명,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학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지리, 역사,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하지만 다른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이는 정반대로 기존 학문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아마도 정치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정치학자는 한 국가 내 발생하는 정치적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특히 학제 간 연구, 즉 지역학적 접근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Bates, 1997). 하지만 또 다른 일련의 정치학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게임 이론(game theory) 등과 같이 이를 관통하는 - 보통, 인간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는 -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제 간 ‘경계선 긋기’ 문제는 단순히 쌍방간 ‘힘겨루기’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람직한 과학적 연구방법(scientific methodology)과 관련

하여 쉽게 해소되기 힘든 학문적 차원의 이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된 정치학의 경우 지역학적 접근을 지지하는 학자 집단은 특정 지역 내 정치적 현상을 전체론적(holistic)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지학적(ethnography) 연구방법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론에 바탕을 둔 엄밀한 가설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학제 간 갈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지역학은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아직 뚜렷한 목적,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병주(2007)는 지역학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지역 연구의 시작이 애초부터 학문적 시류와 정책적 요구에 따라 산만하게 시행된 측면이 있으며, 둘째로 지역 연구자 대부분이 자신의 연구 지역 내 ‘고유성’을 강조하고 이를 주된 연구 과제로 삼으면서 학문 분야로서 지역학이 지나치게 분절화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학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태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지역학의 경우에도 제주학, 서울학, 대전충청학, 충북학, 경기학, 영남학, 호남학 등 여러 세부 학문적 흐름이 존재하며 각각의 분야는 서로 간 상당 부분 단절된 모습을 보이는 형편이다(이창식, 2016).

학문으로서 지역학의 이러한 ‘불분명한’ 범위는 분명 지역학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서 발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다원화된 현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단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세부 지역학 분야에서 해당 지역 내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학문 전체의 발전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역학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학계로부터 요구하는 지식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지역학의 태동과 발전은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역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어쩌면 엄격한 학문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퀴켄키안 위원회 보고서는 이미 1996년 지나치게 자신의 ‘울타리’를 높게 쌓으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동떨어진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과학 내 풍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사회과학은 쇠퇴되고 확대되고 의미 있는 다원적 보편주의 모색에서 모든 문화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아주 폭 넓은 개방을 받아들여야 한다(월러스틴 외, p. 6).”

이러한 맥락에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살펴본 여러 연구 - 특히, 사회과학 연구 - 가 주목한 연구 주제와 키워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것 만으로도 충분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관련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라면 특히 시급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3. SCOPUS 키워드 분석 개요

#### 3.1 전체 데이터 추출 기본 결과

<표 1> 분야별/시기별 논문 수와 비율

구분		예술/인문	경영/비즈니스	경제/금융	사회과학
1856-1979년	비율(%)	37.1	10.9	8.5	71.4
	편수	530	156	121	1,020
1980-1989년	비율(%)	34.5	15.7	8.2	67.3
	편수	486	221	115	947
1990-1999년	비율(%)	26.7	19.3	16.1	69.1
	편수	618	448	373	1,601
2000-2004년	비율(%)	21.6	19.8	17	71.5
	편수	314	288	248	1,040
2005-2009년	비율(%)	22	22	15	70.7
	편수	529	529	361	1,698
2010-2016년	비율(%)	29.7	20.7	13.1	76.3
	편수	1,802	1,257	797	4,622

위 <1. 3 연구방법론>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부여한 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총 13,731편의 논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관한 연구이다 보니 아무래도 해당 지역 국가의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현지 기관을 통해 발표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국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국가의 논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비스칸디나비아 지역이면서 비영어권에 속한 국가 가운데 특히 독일에서 해당 지역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1>2),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

순위	기관	편수
1	스톡홀름 대학교, 스웨덴(Stockholms universitet)	557
2	오슬로 대학교, 노르웨이(Universitetet i Oslo)	518
3	헬싱키 대학교, 핀란드(Helsingin Yliopisto)	491
4	룬드 대학교, 스웨덴(Lunds Universitet)	444
5	예테보리 대학교, 스웨덴(Göteborgs Universitet)	420
6	위메오 대학교, 스웨덴(Umeå universitet)	385
7	코펜하겐 대학교, 덴마크(Københavns Universitet)	381
8	옵살라 대학교, 스웨덴(Uppsala Universitet)	378
9	오르후스 대학교, 덴마크(Aarhus Universitet)	328
10	베르겐 대학교, 노르웨이(Universitetet i Bergen)	266

2) 본 표에 제시된 비율과 편수는 SCOPUS에서 제공한 기본 데이터를 가공한 것으로, 데이터 추출 결과 도출된 전체 논문의 수량 13,731편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SCOPUS가 하나의 논문을 하나의 분야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복수의 분야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논문은 예술/인문 분야로도 사회과학 분야로도 복수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논문이 실제 수치로는 2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본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논문 편수가 증가한 한편, 해당 시기에 분야별 분포도에 있어서도 100%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3> 논문 저자의 국적

순위	나라	편수	순위	나라	편수
1	스웨덴	3533	6	영국	888
2	노르웨이	2260	7	아이슬란드	259
3	핀란드	1985	8	독일	235
4	덴마크	1582	9	캐나다	153
5	미국	1398	10	오스트레일리아	151

이 분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자의 논문은 15편으로 순위로는 29위에 기록되어 있다.

<표 4>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저널

순위	저널명	편수
1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384
2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7
3	Acta Sociologica	207
4	Cooperation And Conflict	197
5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64
6	Norwegian Archaeological Review	159
7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46
8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14
9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2
10	West European Politics	105

### 3.2 SCOPUS 키워드 분석 과정

#### 3.2.1 분석 개요

185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체 13,731편의 논문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나, 2013년 이후 논문 데이터는 현재에도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12년까지의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논문 샘플 수는 11,734편이며, 해당 논문에 기재된 전체 키워드 샘플 수는 21,570개였다. 아울러 1975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 전체는 키워드 데이터가 부재하여 분석 시기도 1976년 이후로 제한되었다.

또한, 전체 논문이 11,734편이고 전체 키워드가 21,570개로 샘플의 수량이 방대하며, 시기적으로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7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1) 1976~1990년, 2) 1991~1995년, 3) 1996~2000년, 4) 2001~2005년, 5) 2006~2010년, 6) 2011년, 7) 2012년<sup>3)</sup>.

### 3.2.2 분석 절차

키워드 분석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먼저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 기재된 키워드 전체를 추출한 후, 동일한 키워드-유사 키워드 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분야끼리 소분류(소주제)-중분류(중주제)로 구분하였으며, 중분류 중에서도 유사한 것끼리 묶어 대분류(대주제)로 구분하였다. 다만 중분류-대분류 구분에 있어 SCOPUS에 별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이 자의적으로 구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반적·보편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였다.

다만 키워드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해당 키워드가 중분류, 혹은 대분류 구분에서 복수 이상의 분야로 속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아울러 논문의 저가가 의도했던 분야와는 다소 다른 구분이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구분을 적용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2011~2015년이 포함되는 5년 동안의 기간별로 보고자 하였으나, 2012년 이후 데이터 분석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2011년과 2012년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시기인 만개별 연도로 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4. SCOPUS 키워드 세부 분석

### 4.1 시기별 키워드 세부 분석

#### 4.1.1 1976~1990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976~1990년 키워드 상위 5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Exchange rates	8
2	Unemployment, Communication	5
3	Macroeconomy, Production, Mesolithic, Energy	4
4	Organization, Management, Computer, Economy, Health, Tourism, Gender, Viking, Government	3
5	Age, Future studies, Neolithic, Medieval, Course structure, Depression, Risk, Culture, Alcohol	2

샘플 수가 적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 시기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횟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가장 높은 순위에는 ‘환율(Exchange rates)’ 키워드가 위치하였다. 그 외에 ‘실업(Unemployment)’, ‘거시경제(Macroeconomy)’, ‘경제(Economy)’, ‘경영(Management)’ 등 경제 및 경영 분야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다. 아울러 ‘중석기(Mesolithic)’, ‘바이킹(Viking)’, ‘신석기(Neolithic)’, ‘중세(Medieval)’ 등 역사와 관련된 키워드도 많이 언급된 점이 흥미롭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짐작되었던 ‘복지’ 관련 키워드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미루어 짐작할 때 해당 시기에는 복유립식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키워드 분포가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었다



는 점을 생각할 때,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여러 분야의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발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주로 경제와 사회 분야에 관한 논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경제 분야로 구분한 키워드들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1976~1990년 경제 분야 대분류로 구분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대분류
Macroeconomy	4	거시경제	경제
Economy	3	경제 일반	
Unemployment, Work	6	고용/노동	
Production	4	생산/생산성	
Exchange rates	8	통화/화폐	
계	25		

#### 4.1.2 1991~1995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303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991~1995년 키워드 상위 5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Welfare	18
2	Unemployment	10
3	Market	9
4	Economy	8
5	Entrepreneurship, Government	7

이전 시기인 1976~1990년 사이의 논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복지(Welfare)’ 키워드가 갑작스럽게 많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표 7>에서도 보이듯이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역시 ‘복지’였다. ‘복지’ 키워드를 제외하면 ‘실업(Unemployment)’, ‘시장(Market)’, ‘경제(Economy)’, ‘기업(Entrepreneurship)’ 등 경제와 관련된 키

워드가 상위권에 대거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기와 비슷한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정부(Government)’ 라는 키워드 역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혹은 경제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논문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위 키워드 분포를 볼 때, 전체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앞선 시기에 비해 보다 명확해 졌으며, 주로 ‘복지’와 ‘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복지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개편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퇴와 IT 산업의 급작스런 부상 등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상위 키워드 분석에서 파악되었던 바와 같이 주로 경제와 사회,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논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경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된 키워드들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1991~1995년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Unemployment	10	실업	고용/노동	경제
Entrepreneurship	7	기업	기업/생산	
Economies of scale 등	8	경제 관련	경제 일반	
Productivity	4	생산성	산업/생산	
Pulp	3	펄프	산업/생산	
Market	9	시장	시장	
Wages	3	임금	소득/수입	
Tax	3	세금	재정/조세	
Monetary	2	통화	통화/화폐	
계	49			
Welfare, care	20	복지	복지 일반	사회복지
Welfare state	4	복지국가	복지국가	
계	24			

### 4.1.3 1996~2000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1,552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해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해당 시기 전체 키워드 1,552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사회(Social, Society)’였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또는 문제 관련 논문이 해당 시기에 많이 발표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구체적으로는 Social assistance, Social services, Social reform, Social relations 등의 연계 키워드로 많이 언급되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 ‘개발(Development)’ 역시 이전 시기에 많이 언급된 경제적 상황의 해결 혹은 이 시기에 많이 언급된 ‘사회적’ 상황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키워드 분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Child, Children)’, ‘젠더(Gender)’, ‘가족(Family)’ 등 사람 자체에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부각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경제나 복지 주제가 주로 거시적이고 시스템, 혹은 담론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것이 보다 구체적인 대상, 즉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1996~2000년 키워드 상위 10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Social/society	34
2	Development	22
3	Child/Children	19
4	Gender	18
5	Unemployment	15
6	Work	14
7	Labour market	11
8	Employment, Migration, Family, International	10
9	Organization, Welfare state, Europe(EU)	9
10	Region, Media	8

‘실업(Unemployment)’, ‘노동(Work)’, ‘노동시장(Labour market)’, ‘고용(Employment)’ 등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 역시 꾸준하게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경제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연구 주제라는 점을 확인케 하는 점이다. 다만 이전까지의 ‘경제’ 관련 주제는 ‘실업’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주로 ‘거시경제’나 ‘경제’ 자체, 혹은 ‘기업’ 등에 관한 키워드가 우세했던 반면, 이 시기에는 ‘노동’, ‘노동시장’, ‘고용’ 등 주로 일자리 혹은 노동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북유럽 국가에서도 해당 시기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용조건 등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 판단된다. 한편으로 ‘유럽(Europe, EU)’ 키워드가 9위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끄는데, 이것은 1995년 스웨덴과 핀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sup>4)</sup>한 것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이 분류된 경제 분야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1996~2000년 경제 분야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Household economy 등	8	가정경제	가계/소비	경제
Consumer	2	소비	가계/소비	
Accounting	3	회계	감사/회계	
Macroeconomy	5	거시경제	거시경제	
Economic growth	3	경제성장	경제 일반	
Oil price shocks, Stores 등	33	경제 관련	경제 일반	
Employment	10	고용	고용/노동	
Part-time work, Work ethic 등	14	기타	고용/노동	
Vocational training	2	직업훈련	고용/노동	
Labour	8	노동자/노동력	고용/노동	
Unemployment	15	실업	고용/노동	
Work, Occupations	7	직업	고용/노동	
Trad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등	3	노동조합	고용/노동	

4) 1995년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하였는데, 스웨덴 국민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비율로, 핀란드에서는 찬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두 나라에서 모두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상황 변화, 경제위기 극복 등의 이슈는 유럽연합 가입에 있어 공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여겨졌다.

Recruitment	2	구인/구직	고용/노동
Labour market	11	노동시장	고용/노동
flexibility	2	노동 유연성	고용/노동
Wage	7	임금	고용/노동
Company failure 등	6	기업 일반	기업
Entrepreneurs	4	기업가	기업
SME	6	중소기업	기업
Export	2	수출	무역
Business	5	비즈니스	비즈니스
Production, Productivity	4	생산성	산업/생산
Agriculture, Agrarianism 등	6	농업	산업/생산
Fisheries, Grocery industry 등	7	기타	산업/생산
Industry	6	산업	산업/생산
Forestry	6	임산업	산업/생산
Metals industry	2	철강업	산업/생산
Distribution	4	분배	소득/분배
Earnings	4	소득	소득/분배
Income	3	수입	소득/분배
Market orientation 등	4	일반	시장
Market structure	3	시장구조	시장
Insurance	2	보험	은행/금융
Banking	8	은행	은행/금융
Finance	7	금융	은행/금융
Stock	4	주식	자산/주식
Dividends	2	배당	자산/주식
Budget	3	예산	재정/조세
National accounts 등	3	기타	재정/조세
Tax	8	세금	재정/조세
Monetary policy	2	통화정책	통화/화폐
Optimal currency area 등	6	일반	통화/화폐
Exchange rate	4	환율	통화/화폐
Investment	3	투자	투자
계	259		

#### 4.1.4 2001~2005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3,276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해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lt;표 11&gt; 2001~2005 키워드 상위 10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Social/Society	51
2	Migration(Immigration)/Migrants(Immigrants)	33
3	Innovations	25
4	Europe(EU)	24
5	Education	23
6	Libraries	20
7	Economy, Gender	18
8	Management, Welfare state	17
9	Unemployment, Family	16
10	Work, SMEs, IT(ICT)	15

해당 시기 전체 키워드 3,276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1996~2000년과 마찬가지로 ‘사회(Social, Society)’라는 키워드였다. 역시 다양한 사회적 상황 및 사회적 문제에 관한 논문들이 해당 시기에 많이 발표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시기 키워드 분포에서 가장 눈 여겨 볼 대목은 ‘이민(Migration/Immigration)’, ‘이민자(Migrants/Immigrants)’ 키워드가 대거 등장한 것이다. ‘이민’ 키워드는 이전 시기인 1996~2000년에도 8위(10회)에 오르면서 점차 주요 키워드로 대두되었는데, 2001년~2005년에는 그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여기에는 실제 이민자의 증가, 그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의 샘플 논문의 상당수가 발표된 스웨덴 국내에서 ‘이민’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내건 정당의 활동이 2000년 이후 본격화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민’ 키워드와 더불어 ‘혁신(Innovations)’ 키워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것은 경제와 사회 분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 전략이 아닌 새롭고 창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언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이 많이 발표된 스웨덴에서 2001년 1월 1일 ‘혁신청(Vinnova)<sup>5)</sup>’이 발족

5) Vinnova는 주로 R&D 분야를 위한 정책자금 및 지원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정부기관으로, 기술, 운송, 통신 및 노동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

한 것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경제(Economy)’, ‘실업(Unemployment)’, ‘노동(Work)’ 등 경제 관련 키워드 역시 꾸준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으나 이전 시기들에 비해 그 순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교육(Education)’, ‘도서관(Libraries)’ 등 교육 및 문화 관련 키워드가 대폭 오른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에 있어 비약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상위권에 포진한 ‘이민’, ‘혁신’ 키워드 둘 다 ‘교육’ 키워드와 상당한 연관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이 시기에 ‘한국(South Korea)’ 키워드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횟수는 2번 이었다. 발트 3국 하나인 ‘에스토니아(Estonia)’ 키워드도 특이하게 4회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2001년 에스토니아의 유력 정치인이 에스토니아의 국기를 기존의 가로 삼색기 형식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전형적인 가로 십자가형 디자인으로 바꿀 것을 제안<sup>6)</sup>하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일이 있었던 것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이전 시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주로 경제와 사회 분야에 많은 논문이 편재되어 있다. 다만 이전 시기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관련 주제가 더 많이 나타났으나, 2001~2005년 시기부터 ‘사회’ 관련 주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는 사회 분야로 분류된 키워드 중 ‘사회’와 ‘이민’ 중분류로 나눌 수 있는 키워드를, <표 13>은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대분류로 구분된 키워드를 보여준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https://www.vinnova.se/>).

6) <http://epl.delfi.ee/news/arvamus/kaarel-tarand-lippude-vahetusel?id=50812451>(에스토니아 어 원문 신문 내용을 영어로 번역). 하지만 이 제안은 결국 부결되어 에스토니아는 현재에도 가로 삼색기 형식의 국기를 사용하고 있다.

<표 12> 2001~2005년 사회 분야 중 '사회' 중분류, '이민' 중분류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Social law/programmes/structure 등	36	사회 관련	사회	사회
Social Policy	9	사회정책	사회	
Information society	4	정보사회	사회	
Society	2	사회	사회	
계	51			
Immigrants	18	이민자	이민/이주	
Diaspora, Migrant associations 등	3	이민/이주 관련	이민/이주	
Refugees, Asylum-seekers	10	난민/망명	이민/이주	
Migration, Immigration	15	이민	이민/이주	
계	46			

<표 13> 2001~2005년 교육 분야 대분류, 문화예술 분야 대분류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Higher education	6	고등교육	교육	교육
Teachers	3	교사	교사/학생	
Student	3	학생	교사/학생	
Education	23	교육	교육	
Universities, College 등	9	대학	학교	
Schools	3	학교	학교	
School competition/size 등	6	학교 관련	학교	
계	53			
Multicultural, Cross-cultural	13	다문화/비교문화	문화	문화예술
Libraries	20	도서관	도서관	
Librarians	5	사서	도서관	
Culture	11	문화	문화	
Cultural change/study 등	8	문화 관련	문화	
Heritage, Folklore	5	전통문화	문화유산	
Museum	2	박물관	박물관	
Rock art 등	6	예술 관련	예술	
National Culture	5	하위문화	문화	
계	75			

#### 4.1.5 2006~2010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9,401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2006~2010년 키워드 상위 10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Social/Society	161
2	Education/Educational	106
3	Migration(Immigration)/Migrants(Immigrants)	103
4	Gender	102
5	Cultural/Culture	73
6	Child/Children	67
7	Europe(EU)/European	64
8	Economy/Economic, Corporate	58
9	Language	51
10	Family	49

해당 시기 전체 키워드 9,401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1996~2000년, 2001~2005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Social, Society)’ 키워드였다. 앞선 시기에서처럼 여러 사회적 상황 및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다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사회’ 키워드 외에 가장 주목할 만하게 증가한 키워드는 ‘교육(Education, Educational)’이라는 키워드였다. ‘교육’ 키워드는 2000년 이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으나, 2001~2005년 키워드 분포에서는 5위로(23회) 급격하게 순위가 상승한 바 있었다. 그리고 2006~2010년 키워드 분포에서는 ‘사회’ 키워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교육’ 관련 분야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민(Migration, Immigration, Migrants, Immigrants)’ 키워드 역시 이전 시기에 이어 높은 비율로 언급되고 있다. 아울러 ‘젠더(Gender)’, ‘어린이(Child, Children)’ 등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해 왔던 키워드 역시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는 기존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문화(Culture, Cultural)’ 키워드가 대폭 상승한 순

위로 등장한 점이다. ‘언어(Language)’ 키워드 역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였는데, ‘교육’, ‘이민’, ‘문화’, ‘언어’ 키워드 간 상관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2001~2005년에 이어 ‘사회’ 관련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전에 거의 대등하게 다루어지곤 했던 ‘경제’ 분야 주제의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키워드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관련 주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점을 볼 수 있었다. <표 15>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상승한 교육 관련 키워드를 보여준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상위 10위권 내에는 없었지만 전체 키워드 분류표에는 흥미롭게도 ‘만화(Cartoons: Danish cartoons, Muhammad cartoons 포함)’ 키워드가 16회 정도나 언급되어 있었다. 이것은 2005년 덴마크 신문사 ‘일란즈-포스텐(Jyllands-Posten)’에 실렸던 마호메트 풍자만화(7)와 그로부터 비롯된 덴마크 국내외의 논란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 
- 7) 덴마크 일간지 일란즈-포스텐 2005년 9월 30일자에 실린 만평으로, 이슬람 예언자 마호메트(무함마드)가 천국에 도착하는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를 환영하고 머리에 폭탄 모양의 터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덴마크 국내의 각종 이슬람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만평 작가 등에 대한 살해위협 등의 소동도 벌어졌다. 종교적·문화적 차이와 관용에 무지한 태도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신성모독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한편에서는 종교를 비롯한 어떤 영역도 언론의 비판과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만평작가 등에 대한 살해위협과 같은 행동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주장이 맞았다. 일부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는 덴마크 대사관에 대한 방화 등 소요사태와 더불어 덴마크 대사관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논란이 점차 커지면서 이 만평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의 여러 신문에도 실리기도 한다.

<표 15> 2006~2010년 교육 분야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Education	53	교육	교육	교육
Education reform	6	교육 개혁	교육	
Educational achievements/context/development 등	35	교육 관련	교육	
Education policies	12	교육 정책	교육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12	직업교육	교육 과정	
Special education	4	특별교육	교육 과정	
Higher education	17	고등교육	교육 과정	
Comprehensive/Secondary schools	11	중등교육	교육 과정	
Compulsory schools	6	의무교육	교육 과정	
Adult education	7	성인교육	교육 과정	
PISA, Overeducation 등	8		기타	
Bologna process 등	3	대학 관련	학교	
University	16	대학	학교	
Polytechnics	4	기능대학	학교	
Teaching	4	교수법	학교	
Teachers	20	교사	학교	
Teacher education	9	교사 교육	학교	
Classrooms	16	교실	학교	
Schools	24	학교	학교	
School achievement/environment/performance 등	33	학교 관련	학교	
Student demographics/mobility/performance 등	10	학생 관련	학교	
Students, Pupil	10	학생	학교	
Learning	21	학습	학교	
Learning activities/communities 등	9	학급 관련	학교	
계	350			

#### 4.1.6 2011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3,364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해 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2011년 키워드 상위 10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Cultural/Culture	63
2	Gender	58
3	Education/Educational	45
4	Social/Society	40
5	Migration(Immigration)/Migrants(Immigrants)	39
6	Economy/Economic	36
7	Public	31
8	Language	27
9	Schools	26
10	Family	22

해당 시기 전체 키워드 3,364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문화(Culture, Cultural)’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문화(Culture, Cultural)’ 키워드가 급격하게 상위 순위에 등장한 것은 바로 이전 시기인 2006~2010년 사이로 5위(73회)에 위치해 있었는데, 2011년에 이르면 그 순위가 다시 상승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이점을 통해 볼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반적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삶의 반경 외에도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관심과 요구, 혹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조응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화 수용과 변용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향후에 지속적인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사항이겠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거 증가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젠더(Gender)’ 키워드는 지속적이고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했던 키워드였는데, 이 시기에는 보다 더 자주 언급된 키워드로 파악되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연결되는 키워드로 보면 이전까지는 주로 ‘양성평등’ 등과 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갈등’이나 ‘충돌’ 등의 키워드와 함께 연관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 하겠다. 그 외에 ‘교육(Education, Educational)’, ‘이민(Migration, Immigration, Migrants, Immigrants)’,

‘사회적(Social)’ 등 키워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Economy, Economic)’ 키워드가 계속해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 키워드를 제외한 경제 분야 다른 키워드들은 2000년 중반 이후로 그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거나 10위권 밖으로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지난 시기 2006~2010년 키워드 분포에서 8위(27회)에 위치했던 ‘언어(Language)’ 키워드가 한 단계 상승했으며, ‘학교(Schools)’ 키워드가 새롭게 10위권 안에 포진하게 되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와 ‘학교’, 그리고 ‘교육’ 키워드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 관련 분야 주제가 계속해서 크게 우세하였으며, ‘교육’ 및 ‘정치’ 분야 관련 주제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7>과 <표 18>은 각각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문화 관련 키워드와 젠더 관련 키워드를 별도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표 17> 2011년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Cross-cultural, Multicultural, Multiculturalism	10	다문화/비교문화	문화	문화예술
Design	2	디자인	예술	
Culture	14	문화	문화	
Library	6	도서관	도서관	
Subcultures, Youth culture 등	10	하위문화	문화	
Cultural change/Diversity/symbols 등	21	문화 관련	문화	
Cultural capital	4	문화적 자본	문화	
Drama, Scenarios	2	영상	예술	
Dance, Hip-hop, Exhibitions	5	공연/전시	예술	
Music	6	음악	예술	
Rock carving, landscape painting 등	5	미술	예술	
Heritage, Traditions	4	문화유산	문화	
계	89			

&lt;표 18&gt; 2011년 양성(젠더) 분야로 분류된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Masculinity	3	남성성	남성	양성
Sex	3	성	성	
Women	7	여성	여성	
Female agency/patronage	4	여성 관련	여성	
Feminism	4	여성주의	여성	
Gender	43	젠더	젠더	
Gender contract/differences/regime 등	9	젠더 관련	젠더	
Gender equality	6	양성평등	젠더	
계	79			

#### 4.1.7 2012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추출한 전체 3,471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선정해 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해당 시기 전체 키워드 3,471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사회(Social, Society)’였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 ‘교육(Education, Educational)’, ‘젠더(Gender)’, ‘이민(Migration, Immigration, Migrants, Immigrants)’, ‘문화(Culture, Cultural)’ 키워드가 여전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개 키워드가 최근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10권에 자리하기 시작한 ‘언어(Language)’ 키워드는 순위가 더 상승하여 5위에 위치하는 등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사(Teacher)’ 키워드는 처음으로 10위권에 위치하였는데, ‘교육’, ‘언어’ 키워드의 지속적인 강세와 더불어 무척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과 관련한 핵심 주제 중 ‘학생’ 못지않게, 또는 학생보다 ‘교사’ 키워드가 많았던 점은 무척 흥미로운 대목으로 판단된다.

<표 19> 2012년 키워드 상위 10위

순위	키워드	횟수
1	Social/Society	56
2	Education/Educational	42
3	Gender, Migration(Immigration)/Migrants(Immigrants)	41
4	Cultural/Culture	35
5	Language	31
6	Teacher	27
7	Public, Media	25
8	Child/Children	20
9	Ethnic/Ethnicity	19
10	Crime/Criminal	18

이외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는 새롭게 10위권에 등장한 ‘인종/민족 (Ethnic, Ethnicity)’ 키워드와 ‘범죄(Crime, Criminal)’ 키워드였다. 이 두 키워드들은 특히 ‘이민’ 키워드와 연관성이 눈에 띄었는데, 논문 본문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서술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0년대 들어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이민’ 키워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 관련 분야 주제가 여전히 크게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표 21>은 전체 키워드 순위에서 10위권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 분야 대분류 중 ‘인종/민족’, 그리고 ‘범죄’ 분야 중분류 키워드를 따로 분류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1> 2012년 사회 분야 중 ‘인종/민족’ 중분류와 ‘범죄’ 중분류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Ethnic capital/groups/relations	11	인종/민족 관련	인종/민족	사회
Ethnic minority	3	소수 민족	인종/민족	
Ethnicity	5	인종/민족	인종/민족	
Pakistani, Slavs, Roma people 등	7	기타	인종/민족	
Racism	5	인종차별	인종/민족	

Swedish-American	5	스웨덴계 미국인	인종/민족
계	36		
Crime, Criminalisation	13	범죄	범죄
Criminal justice/policy 등	5	범죄 관련	범죄
Prostitution	4	매춘	범죄
Rape, Sexual offenses	3	성범죄	범죄
Riot, Trafficking, Prison 등	9	기타	범죄
Street gangs	3	길거리갱	범죄
Victimhood, Victimization	5	희생/희생자	범죄
Violence, Violent	6	폭력	범죄
계	48		

<표 20>은 ‘교육’ 관련 대분류 중 최근에 급격하게 순위가 상승한 ‘교사’ 키워드가 포함된 ‘교사/학생’ 중분류 키워드를 별도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20> 2012년 교육 분야 중 ‘교사/학생’ 중분류 키워드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Pupils, Students	9	학생	교사/학생	교육
Teacher competence/expertise 등	7	교사 관련	교사/학생	
Teacher education	10	교사 교육	교사/학생	
Teachers	10	교사	교사/학생	

## 5. 결론

이상에서 SCOPUS 학술 DB검색 결과를 통해 185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시기별로 연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연구 분야와 그 분야에 관련된 주제어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떤 분야의 주제어들이 관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키워드 분석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



다. 분석 대상이 되는 초기(1976~1990년)에는 비록 표본수가 많지는 않지만 경제 관련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 관광, 경영, 정부, 건강, 컴퓨터 등 비교적 다양하고 고른 키워드 분포도를 나타냈다고 평가된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는 점차 명확하고 특정한 키워드들이 강하게 두드러지면서 이런 현상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환율’, ‘실업’, ‘경제’, ‘복지’ 등 주로 경제적 상황에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된 반면, 2000년대 이후로는 ‘사회’, ‘교육’, ‘문화’, ‘젠더’, ‘이민’ 다섯 개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대 이후로는 ‘언어’, ‘교사’, ‘인종/민족’, ‘범죄’ 등의 키워드들도 꽤 자주 언급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70년대 중반 이후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시기별로 자주 언급되었던 키워드 분포를 보았을 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는 ‘경제’ 및 ‘복지’ 관련 연구가 큰 흐름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점차 ‘사회’, ‘문화’ 관련 분야의 연구가 큰 흐름을 이루며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거시적인, 혹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논의와 담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회 현상 및 대상, 그리고 사람 자체에 연관되는 논의와 담론으로 연구의 성격도 변화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동일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묶어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도 키워드 분석에서 파악된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경제와 사회 관련 분야가 큰 축을 이루고 있었다. 아울러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 분야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 분야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키워드 분석에서 파악된 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22>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소분류(소주제), 중분류(대주제) 측면에서 보자면 키워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비해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세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시적이거나 정책적 측면의 주제들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큰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경제 및 사회 분야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교육, 문화예술,

언어 관련 부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표 22> 1976~2012년 대분류(대주제) 편수와 비율 추이

구분	197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2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경영	9	4%	6	2%	33	2%	80	2%	130	1%	47	1%	31	1%
경제	25	12%	49	16%	259	17%	467	14%	1023	11%	327	10%	335	10%
과학기술	4	2%	9	3%	24	2%	89	3%	135	1%	34	1%	30	1%
교육	2	1%	8	3%	19	1%	53	2%	350	4%	166	5%	151	4%
국가/지역	32	16%	21	7%	172	11%	458	14%	1115	12%	429	13%	445	13%
문화예술	2	1%	3	1%	21	1%	75	2%	208	2%	89	3%	84	2%
보건/의료	3	1%	10	3%	17	1%	21	1%	78	1%	21	1%	37	1%
사회	21	10%	32	11%	185	12%	491	15%	1789	19%	538	16%	562	16%
사회복지	0	0%	24	8%	37	2%	68	2%	107	1%	31	1%	58	2%
양성/젠더	3	1%	4	1%	40	3%	39	1%	187	2%	79	2%	77	2%
언어/문학	0	0%	0	0%	0	0%	29	1%	132	1%	92	3%	108	3%
에너지/환경	5	2%	6	2%	13	1%	21	1%	71	1%	33	1%	26	1%
역사	11	5%	7	2%	19	1%	47	1%	161	2%	46	1%	61	2%
연구/학문	13	6%	30	10%	31	2%	134	4%	338	4%	182	5%	167	5%
인구	3	1%	8	3%	53	3%	92	3%	171	2%	95	3%	76	2%
정치	3	1%	10	3%	63	4%	125	4%	389	4%	201	6%	161	5%
기타	67	33%	76	25%	566	36%	987	30%	3017	32%	954	28%	1062	31%
계	203	100%	303	100%	1552	100%	3276	100%	9401	100%	3364	100%	3471	100%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나, 2012년까지만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어 2013~2016년 현재의 키워드 흐름을 함께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완결되었다라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이지만, 이 부분은 향후 연구 과제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기계적·정량적·서술적 측면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단순한 키워드의 나열과 배열이 아닌 키워드가 지닌 사회적·문화적·경제적·역사적 맥락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성적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법론 차원에서도 키워드를 분류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분류표 역시 학문적 정합성과 객관성을 한층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지니는 기본적인 한계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한편, 그것

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구함과 동시에 기왕에 추출하였던 2016년까지의 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본 연구와 연결되는 추후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에서 키워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것이라면, 향후 연구 과제의 첫 번째는 국내 연구자들에 이루어진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에 있어 국내외를 막론한 해당 지역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과 연구의 큰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절차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겠으나,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틀을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국내외 주요 언론과 미디어에서 소개되고 이슈화되었던 스칸디나비아 지역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서서는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매체를 통한 의제 설정의 패턴과 방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분야별 키워드 분석이 마무리되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메타 데이터 분석 틀을 활용하여 국내외를 막론한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와 이슈에 관해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과제와 연결되는 향후 과제와는 별도로 본 연구 자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파생 연구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테면 개별 학문 분야를 대표할 만한 저널 자체 내에서만 키워드를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키워드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향후 연구과제 및 파생 연구과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지니는 여러 한계점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해결이 전제될 때 그 의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연구 역시 인간의 구체적 삶과 유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 관련 연구자들 역시 해당 시기의 역사적·사회적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파악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현상, 주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국내에서도 지금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스칸디나비아 지역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학생들에 대한 동기 부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관련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월러스틴, 이매뉴얼/이수훈 역, 1996. 『사회과학의 개방』, 서울: 당대.
- 유팔무, 2015.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경제와 사회』, 제106호, pp. 296-324.
- 이창식, 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제 2호, pp. 7-38.
- 정상수, 1998. “지역연구로서 독일연구”, 『독일학 연구』, 제7호,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pp. 125-136.
- 하병주, 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 『지중해 지역연구』, 제9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pp. 249-276.
- Bates, R. H. 1997.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 A Useful Controversy?”,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30, No. 2, pp. 166-169.
- Flom, G. T. 1911. “A Sketch of Scandinavian Study in American Universities”, *Publications of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candinavian Study*, Vol. 1, No. 1, pp. 12~20.
- Gieryn, T. F. 1999.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Credibility of the L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very, J. 2011. “Scandinavian Studies: The Past Hundred Years, The Next Hundred Years”, *Scandinavian Studies*, Vol. 83, No. 2, pp. 299-306.
- Nowotny, H., Scott, P., & Gibbons, M. 2001. *Re-Thinking Science: Knowledge and the Public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Polity Press.
- Whitley, R. 2000. *The Intellectual and Social Organization of the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2012년 전체 키워드 분류표<sup>8)</sup>

키워드	횟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Board of directors	5	이사회		경영
Leadership	4	리더십		
Management	6	매니지먼트		
Organization	13	조직		
Marketing	3	마케팅		
계	31			
Consumer	2	소비자	가계/소비	경제
Consumption	3	소비	가계/소비	
Accounting	7	회계	감사/회계	
Audit, Auditing	9	감사	감사/회계	
Auditor	3	감사인	감사/회계	
GDP, Macroeconomy	3	거시경제	거시경제	
Imports, Export	3	무역	거시경제	
Economic crime/crisis/importance 등	10	경제 관련	경제 일반	
Employer	2	고용주	고용/노동	
Employee	3	피고용인	고용/노동	
Employment	5	고용	고용/노동	
Job context/quality/satisfaction 등	11	직무 관련	고용/노동	
Labor, White collar workers	5	노동자	고용/노동	
Occupation	5	직업	고용/노동	
Self-employment	5	자가고용	고용/노동	
Unemployment	8	실업	고용/노동	
Work, Temporary work	8	노동	고용/노동	
work attitudes/motivation 등	6	노동 관련	고용/노동	
Corporate Governance	5	기업지배구조	기업	
Acquisitions, Merger	2	인수합병	기업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5	사회적 책임	기업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9	기업가	기업	
Firm dynamics/performance/size 등	9	기업 관련	기업	
Firms, Companies	5	기업	기업	
SMEs	7	중소기업	기업	
Collective bargaining	4	단체교섭	노동시장	

8)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한 전체 기간의 키워드(21,570개) 분류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신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인 2012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키워드 분류표를 부록에 제시한다.

Labour market	9	노동시장	노동시장
Labour market policy	7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Trade unions	8	노동조합	노동시장
Workfare	3	실업자 교육	노동시장
Working conditions	4	노동 조건	노동시장
Working time	5	노동 시간	노동시장
Business cycles/improvement 등	5	비즈니스 관련	비즈니스
Agriculture, Dairy farm	10	농축산업	산업/생산
Book industry, publishing	4	출판업	산업/생산
Productivity, productivism	6	생산성	산업/생산
Defence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Logistics 등	19	기타	산업/생산
Industrial relations	3	산업 관계	산업/생산
industry	4	산업	산업/생산
Metal working	3	철강업	산업/생산
Retail industry	4	소매/유통업	산업/생산
Earnings	3	소득	소득/수입
Income	9	수입	소득/수입
Wage	1	임금	소득/수입
Market	9	시장	시장
Banks	4	은행	은행/금융
Finance	3	금융	은행/금융
Financial crime/participation/structure 등	11	금융 관련	은행/금융
Financial crisis	6	금융위기	은행/금융
Insurance, interest rates 등	5	보험	은행/금융
Capital	6	자본	자산/주식
Intellectual property	3	지적 재산	자산/주식
Real estate	2	부동산	자산/주식
Stakeholders	3	주주	자산/주식
Stock markets	2	주식시장	자산/주식
Property tax	3	부유세	재정/조세
Tax	7	세금	재정/조세
Currency, Money	3	통화정책	통화/환율
Exchanges	2	환율	통화/환율
Monetary policy	2	통화정책	통화/환율
Investment	3	투자	투자

계	335			
Science	3	과학	과학	과학기술
Technology	6	테크놀로지	기술	
Mobile Com, High-tech 등	4	과학기술 관련	과학기술 일반	
Electricity, Electronic	5	전기/전자	전기/전자	
Internet	2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Online journalism/teaching 등	5	온라인	컴퓨터/ 인터넷	
Skype, Twitter 등	5	기타	컴퓨터/ 인터넷	
계	30			
Pupils, Students	9	학생	교사/학생	교육
Teacher competence/expertise 등	7	교사 관련	교사/학생	
Teacher education	10	교사 교육	교사/학생	
Teachers	10	교사	교사/학생	
Arts education	4	예술교육	교육	
Education	20	교육	교육	
Educational policy/reform/system 등	12	교육 관련	교육	
Higher education	10	고등교육	교육	
Inclusive education	4	통합교육	교육	
Learning	7	학습	교육	
Lifelong learning	1	평생교육	교육	
PISA	3	피사	교육	
Secondary education	4	중등교육	교육	
Special education	3	특별교육	교육	
Vocational education	4	직업교육	교육	
Primary education	5	초등교육	교육	
Bologna process 등	3	대학 관련	학교	
University models/strategies 등	4	대학 관련	학교	
Univesity	5	대학	학교	
Curriculum	8	커리큘럼	학교	
Pre-school	2	유치원	학교	
School	8	학교	학교	
School context/leadership 등	8	학교 관련	학교	
계	151			
Norway, Svalbard, Spitsbergen 등	37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가/지역
Denmark, Jutland, Faroe Islands 등	52	덴마크	덴마크	



Sámi, Saami	5	라플란드	라플란드	
Nordic, Nordic countries	18	북유럽	북유럽	
Sweden, Rinkeby, Gotland 등	143	스웨덴	스웨덴	
Scandinavia	18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Iceland, Reykjavik	10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Finland, Åland Islands	70	핀란드	핀란드	
Argentina	1	기타	아메리카	
Canada	4	캐나다	아메리카	
USA	6	미국	아메리카	
China	3	중국	아시아	
Korea, South Korea	3	한국	아시아	
Myanmar, Sri Lanka 등	5	기타	아시아	
Africa	1	아프리카	아프리카	
New Zealand	2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France, Dutch, Ireland 등	18	기타	유럽	
Germany	10	독일	유럽	
Russia, Soviet union	12	러시아	유럽	
Estonia	9	에스토니아	유럽	
UK, United Kingdom, Wales 등	9	영국	유럽	
Europe, EU	10	유럽	유럽	
계	445			
Libraries	6	도서관	문화	문화예술
Cross-cultural, Trancultural	7	비교문화	문화	
Cultural boundaries/dimensions/diplomacy 등	15	문화 관련	문화	
Cultural capital	2	문화적 자본	문화	
Culture	7	문화	문화	
Heritage, Folklore	5	문화유산	문화	
Multiculturalism	6	다문화	문화	
Museum, Museet	3	박물관	문화	
National culture, Political culture, Hallyu 등	8	하위문화	문화	
Hip-hop, K-pop, Exhibitions	4	공연/전시	예술	
Art	5	예술	예술	
Cinema, Korean Film	4	영화	예술	
Design	3	디자인	예술	
Artifacts, pottery	3	공예	예술	
Music	2	음악	예술	
Photographs	1	사진	예술	
Visual arts, Rock carvings	3	미술	예술	

계	84			
Health	5	건강	건강	보건의료
Health complaints/inequalities/selection 등	11	건강 관련	건강	
Mental health/illness	6	정신건강	보건	
Pharmacies, Nursing	4	의료 일반	보건	
HIV, Leprosy, Tuberculosis 등	11	질병	보건	
계	37			
Family, ethnic families	4	가족	가정/가족	사회
Family gap/relationships/reunification 등	9	가족 관련	가정/가족	
Fathers, Mothers, Parenthood	6	부모	가정/가족	
Intermarriage, Transnational Marriage	4	국제결혼	가정/가족	
Marriage	3	결혼	가정/가족	
Public opinion/subsidies 등	10	공공부문 관련	공공부문	
Public sector	7	공공부문	공공부문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3	공공-민간 협력	공공부문	
Public Management	4	공공관리	공공부문	
Nature-based tourism	7	자연관광	관광/여행	
Tourism	3	관광	관광/여행	
Tourism adventure/destinations 등	7	관광 관련	관광/여행	
Crime, Criminalisation	13	범죄	범죄	
Criminal justice/policy 등	5	범죄 관련	범죄	
Prostitution	4	매춘	범죄	
Rape, Sexual offenses	3	성범죄	범죄	
Riot, Trafficking, Prison 등	9	기타	범죄	
Street gangs	3	길거리갱	범죄	
Victimhood, Victimization	5	희생/희생자	범죄	
Violence, Violent	6	폭력	범죄	
Discrimination, Segregation	9	분리/차별	분열/통합	
Assimilation	1	동화	분열/통합	
Integration	6	통합	분열/통합	
Ethics, Morality	6	도덕/윤리	사회	
Class, Social Class	12	계급	사회	
Privatization, Suicide 등	7	기타	사회	
Social capital	4	사회적 자본	사회	
Social control/expenditure/movements 등	30	사회 관련	사회	
Social Network	8	사회 관계망	사회	

Social policies	5	사회 정책	사회
Socio-economic equity/status 등	7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
Social work	5	사회 사업	사회
Alcohol, Furniture 등	4	기타	생활/소비
Fashion, Dressmakers 등	4	패션	생활/소비
Houses, Housing, Second homes	10	주거	생활/소비
Residential care/preference 등	4	주거 관련	생활/소비
Cross-country, cross-national	3	국제비교	세계
EU integration, European social dialogue 등	9	유럽 관련	세계
Europeanization	2	유럽화	세계
Global	2	세계	세계
Globalization	5	세계화	세계
International organizations/standards/tourists 등	15	국제 관련	세계
Internationalization	2	국제화	세계
NATO, OECD, UN 등	7	국제기구	세계
Terrorism	2	테러	세계
Transnational networks/transfer	8	초국가	세계
Citizens	3	시민	시민사회
Citizenship	6	시민권	시민사회
Civil	5	시민사회	시민사회
Volunteers	2	자원봉사	시민사회
Activities	3	액티비티	여가/취미
Angling, Leisure 등	7	기타	여가/취미
Sport	8	스포츠	여가/취미
Asylum-seekers	5	망명	이민/이주
Diaspora	1	디아스포라	이민/이주
Immigrants	12	이민자	이민/이주
Immigration	6	이민	이민/이주
Migrants	6	이민자	이민/이주
Migration	17	이민	이민/이주
Refugees	6	난민	이민/이주
Ethnic capital/groups/relations	11	인종/민족 관련	인종/민족
Ethnic minority	3	소수 민족	인종/민족
Ethnicity	5	인종/민족	인종/민족
Pakistani, Slavs, Roma people 등	7	기타	인종/민족
Racism	5	인종차별	인종/민족

Swedish-American	5	스웨덴계 미국인	인종/민족	
Secularism, Church, Christianity 등	6	기타	종교/정체성	
Islam, Muslims	6	이슬람	종교/정체성	
Muhammed cartoons, al-Qaeda 등	3	이슬람 관련	종교/정체성	
Identity	16	정체성	종교/정체성	
Religion, Religious	3	종교	종교/정체성	
Communication	2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Media, Mass media, New media	1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Media coverage/framing/statistics 등	14	미디어 관련	커뮤니케이션	
Mediatization	2	미디어화	커뮤니케이션	
TV, Radio	6	방송	커뮤니케이션	
News, Newspapers	8	신문	커뮤니케이션	
Journalism, Press, Homosexual press	11	언론	커뮤니케이션	
Community	3	커뮤니티	커뮤니티	
Local(Regional) bargaining/democracy/unions 등	27	지역 관련	커뮤니티	
Neighbourhood	3	이웃	커뮤니티	
Regions	5	지역	커뮤니티	
Urban design/development/Planning 등	11	도시 관련	커뮤니티	
Equality, Inequality	10	평등/불평등	평등/불평등	
계	562			
Elderly Care	9	노인 복지	복지 일반	사회복지
Welfare, Care	14	복지	복지 일반	
Welfare benefits/reform/rights 등	8	복지 관련	복지 일반	
Welfare state	10	복지 국가	복지 국가	
Nordic Welfare Model	5	복지모델	복지 국가	
Child welfare, Early care, Foster care	10	어린이 복지	복지 일반	
Pension	2	연금	복지 일반	
계	58			
Male	2	남성	남성	양성
Masculinity	3	남성성	남성	
Homosexuality	2	동성애	성	
Bisexuality	1	이성애	성	
sexuality	6	섹슈얼리티	성	
Female(women) directors/labour supply/	15	여성 관련	여성	

representation 등					
Feminist, feminism	3	여성주의	여성		
Women	4	여성	여성		
Gender	19	젠더	젠더		
Gender conflict/politics/segregation 등	12	젠더 관련	젠더		
Gender Equality	10	양성평등	젠더		
계	77				
Conjunctions, Pronouns 등	4	기타	문법		
Grammar	3	문법	문법		
Verb	4	동사	문법		
Word formation/frequency, Vocabulary 등	7	단어	문법		
Vowels	4	모음	문법		
Biography	3	자서전	문학		
Fiction	3	소설	문학		
Parody, Sagas 등	5	기타	문학		
Literature	5	문학	문학		
Translation	4	번역	문학		
Multilingualism	4	다중언어	언어	언어/문학	
Swedish language, Rinkeby Swedish 등	5	스웨덴어	언어		
Language choice/learning/style 등	15	언어 관련	언어		
Language ideology	3	언어 이데올로기	언어		
Language policy	5	언어 정책	언어		
English as a lingua franca 등	7	영어	언어		
Dialect	3	지방어	언어		
Finnish as a second language 등	4	핀란드어	언어		
Old Norse, Arabic-speaking, Slang 등	12	기타	언어		
language	8	언어	언어		
계	108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7	기후변화	기후		에너지/ 환경
Bio, Eco	6	생태	생태		
Energy	4	에너지	에너지		
Greenpeace, green values 등	2	환경 일반	환경		
Environmental attitudes/concern/issues 등	7	환경	환경		
계	26				
18th Century	4	18세기	근대	역사	
19th Century	3	19세기	근대		
17th Century, Swedish America	5	17세기	근세		
Early modern	4	근세	근세		

History of education/medicine/sexuality 등	12	미시사	미시사	
Ice Age	4	빙하기	선사	
Neolithic, Mesolithic, Palaeolithic	8	석기	선사	
Medieval	6	중세	중세	
Viking Age	2	바이킹	중세	
Iron Age	3	철기	선사	
Bronze Age	4	청동기	선사	
Cold war, XX century 등	6	현대	현대	
계	61			
Action research, Content analysis, Discourse analysis 등	36	기타	방법론	연구/학문
Case study	7	사례연구	방법론	
Comparative study	8	비교연구	방법론	
Interview	4	인터뷰	방법론	
Methodology	3	방법론	방법론	
Qualitative methods	4	질적조사	방법론	
Information theory, Social exchange theory, System theory 등	9	기타	이론	
Agency theory	5	대리이론	이론	
Institutional Theory	3	제도이론	이론	
Contextualism	3	컨텍스트 이론	이론	
Framing	5	프레임 이론	이론	
Phenomenography, Pedagogy, Geography 등	38	기타	학문	
Archaeology	11	고고학	학문	
Logics	7	논리학	학문	
Sociology	5	사회학	학문	
Etymology, Linguistics 등	7	언어학	학문	
History	6	역사학	학문	
Ethnography	6	인류학	학문	
계	167			
Everyday Life	4	일상생활	생애 주기	
Well-being	5	웰빙	생애 주기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5	삶의 질	생애 주기	
Life course	4	생애주기	생애 주기	
Friends, Peers, False friends 등	6	친구	세대	
Intergenerational	5	세대간	세대	
Generation	2	세대	세대	

Elderly, Older men	3	노인	인구 분포
Mortality	7	사망률	인구 분포
Adult	3	성인	인구 분포
Children	10	어린이	인구 분포
Age, Ageing	6	연령	인구 분포
Middle Ages, Teenage	2	기타	인구 분포
Young adults/people, Multicultural youth	10	청년	인구 분포
Fertility	2	출산율	인구 분포
Population distribution	2	인구 구성	인구 분포
계	76		
Governance	8	거버넌스	거버넌스
Government	3	정부	국가/정부
Governmentality	4	통치성	국가/정부
Nation, State	11	국가	국가/정부
Court	5	법원	사법
Law	6	법률	사법
Legal Effectiveness/rights 등	5	법률 관련	사법
Legitimacy	3	적법	사법
Foreign policy	3	외교정책	외교/안보
Border, Peacekeeping	4	기타	외교/안보
Security	4	안보	외교/안보
Military glory/profession 등	3	국방	외교/안보
Radicalisation	4	급진화	이념/주의
Nationalism	4	민족주의	이념/주의
Colonialism, Post-colonialism	5	식민주의	이념/주의
Neo-liberalism	4	신자유주의	이념/주의
Capitalism, Propaganda, Populism 등	26	자본주의	이념/주의
Corporatism	4	코포라티즘	이념/주의
Parliaments	2	의회	입법/의회
Social Democratic parties, Radical right parties	4	정당	정당
Decision making	2	정책결정	정책
Policy analysis/networks/support 등	11	정책 관련	정책
Public policy	4	공공정책	정책
Elections, Voting	4	선거/투표	정치
Corruption, Democracy 등	5	기타	정치
Municipalities	4	지방자치	정치
Political attitudes/campaign/polarization 등	16	정치 관련	정치
Political Participation	3	정치 참여	정치
계	161		

정치

Tolerance	4	관용		기타
Networks	8	네트워크		
Discourse	8	담론		
Risk(crisis) assessment/perception/reduction 등	15	위기/위험		
Self-regulation	3	자기검열		
Institutions	10	제도/기구		
Sustainability	9	지속가능		
knowledge base/work/sources 등	8	지식 관련		
Participation	9	참가		
Innovation	12	혁신		
Activation, Bildung, Change, Disability, Fear, Happiness, Individuals, Narrativity, Sovereignty 등	976	기타		
계	1062			



<Abstract>

## **Research Trends in Scandinavian Studies: A Content Analysis of SCOPUS Keywords**

Kim, Ki-Su \* · Lee, Sung-Jun \*\*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ind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from 1976 up until now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specially concerning Scandinavia or similarly Nordic region. To do so, 11,734 articles from various scientific journals are collected from SCOPUS DB and their 21,570 keywords are further extracted in order to find out which keywords appears most in which time periods. More specifically, similar keywords are sorted out in a bottom-up fashion to eventually come up with three different levels of hierarchical classification - low, middle and high level. As results, before the year 2000, the keywords that appear most was "Economy" and "Welfare" but since then keywords such as "Society" and Culture" began to hold a dominant position. Also, recent studies tend to have more specific keywords than "older" studies with rather general keywords.

**Key Words: Scandinavian studies, Nordic countries, area studies, keyword analysis, SCOPUS**

---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Department of Brazil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성명: 김기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E-mail: serwetus@yahoo.com

성명: 이성준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  
E-mail: sungjun\_lee@hotmail.com

논문 접수일: 2017.5.20.

논문심사 완료일: 2017.6.8.

수정원고 접수일: 2017.6.15.

게재 확정일: 2017.6.16.